보길도굴뚝다리

암태도 징검다리와 보길도 굴뚝다리

전남 암태도는 선인들의 피와 땀, 눈물과 통곡이스며있는고장이며, 목포에서서쪽으로 28.5km 지점에자리하고 있는데 뱃길로 한시간정도의거리에있다. 돌이많이흩어져있고바위가병풍처럼둘러싸여져있다고 하여암태도라하였으며, 천혜의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자랑하는아름다운섬이다.

1924년에 일어난 ‘ 암태도 소작 쟁의 ’는 우리나라 소작 쟁의의 효시였다. 이 쟁의는 암태도소작인들의고율소작료인하운동으로 192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암태도 소작료 불납 운동 과정에서 많은 농민이 희생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8년 높이 6.74m에 면적 1,360㎡의 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을세워암태도소작인들의숭고한 항쟁을기념하고있다.

수천 개 자연석으로 놓은 해상 징검다리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물이 있으면 다리가 있다. 굳이 쌓지 않아도 돌이 모여 되는 징검다리가 있다. 암태도에서는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징검다리를 볼 수 있다. 이 징검다리는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시켜준다. 거리는약1km 정도된다.

추포도는 원래 추엽도와 포도의 두 섬으로나뉘어있었으나, 간척공사로인해하나의섬이되었다. 추엽도는울창한나무사이로호랑이의등처럼보이다가가을이면호랑이의 형태를 보인다 하여 추엽도라 하였다. 포도는서해바다에서밀려오는파도가섬에 닿으면잔잔해진다하여포도라불렸는데추엽도와포도를연도한후부터추포도라는지명으로불려왔다. 두섬을잇기전에는수곡리와추포리를잇는징검다리가있었다고한다. 징검다리는여느 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명물이다. 썰물때면갯벌위에두마을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생겼으며, 이 징검다리는추포리주민들에게오래전부터전천후바닷길구실을하였다.

이 징검다리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추포도에 사는 문씨와 장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자연석으로 놓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징검다리를 노두(路頭)라고 한다. 도로에머리같이튀어나왔다고하여붙여졌다고 한다. 수천개가넘는커다란돌멩이로이루어진징검다리는시간이지나면이끼가생겨 미끄러지기때문에주민들은수천개가넘는 돌멩이를 매년 음력 7월 8~9일 양일 간에 걸쳐한번씩뒤집어준다고한다.

다리를 보기 위해서는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 밀물 때는 다리를 볼 수 없으며, 바닷길은 하루에 두 번 열린다. 또한, 다리를놓은시대와내역이적혀있는낡은비석노두비가 산모퉁이에 있다. 비문을 소개하려 했

으나 너무나 오랜 시간에 비석이 마모되어 전혀알아볼수없기에안타깝다.

지금은차가달릴수있는시멘트포장도로로연결되어주민들의생활은물론관광객들의 왕래가 편리해졌다. 더욱이 추포해수욕장주위에는산림이울창하고야영이가능하며, 인근갯벌에서는낙지가많이잡힌다.

한편, 암태도에는 징검다리 외에도 이곳의 하나뿐인 사찰 노만사가 있다. 노만사는 해남대흥사의말사로서1873년창건되었으며신안군최고의전통사찰이다. 노만사법당 뒤편에 있는 약수터는10년 가뭄에도 마르지않는다고한다.

국문학의 비조 윤선도와 보길도

보길도는 완도에서 남서쪽으로 18.3km, 해남땅끝에서12km, 그리고노화도남서쪽에서 3.8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보길도에 있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27호 부용동 정원은윤선도의유적지이다.

고산윤선도(1587~1671)는조선중기에호남이낳은대시인이며, 조선조시조문학을장식한대가이다. 그는학문만이아니고철학을 위시해서 경사서제자백가(經史書諸子百家)에통달하여정치, 학문, 예술전반에걸쳐조예가깊고 천문, 음양지리, 복서, 의약등다방면에 통달하였으며, 원림(苑林) 경영과간척사업을 하여오늘날까지 전한다. 그중에서도특히시조문학을으뜸으로꼽는다.

해남 육현의 한 분으로 향현사(鄕賢祠)인 해촌서원(海村書院)에배향된고산은전란과 당쟁이소용돌이치는격랑의사회현실속에서도강직한성품의선비로서조선시대의손꼽히는지성이었다. 그의삶은세차례에걸쳐십수년의유배생활을하는등유배와출사, 은둔으로이어져있지만, 나라를위하는 정신과백성을사랑하는마음을문학으로잘 형상화하여우리에게귀중한문화유산을남겨준 분이다. 한시는 물론이고 국문 시가는 국문학의보배이다.

비홍교

고산은자기를포함한주변에서부터국가사회에이르기까지강한실천의지를지니었는데, 특히 노비, 어민, 농민, 빈자 등 여러 방면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각 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전문지식을갖고서이론을폈다. 인생의 덕목을 벼슬에 두지 않고수신(修身)과근행(謹行) 및적선(積善)에두고있고인자한 행실과 검소 절약을 제1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세연정은 윤선도가 직접 만든 정원으로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격자봉에서 흐르는 맑은 계류를 하류에서 받아 만든 큰못을세연지라하고, 세연지의물을끌어들여 인공 연못인 회수담을 만들었는데 두 못사이에세운정자가세연정이다.

세연이란' 주변 경관이 매우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 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주로 연회와 유희의 장소였다. 고산은이곳세연지에배를띄우고어부사시사를 노래하며 풍류를 즐겼다. 건물 터만 남아 있던 세연정은 1992년에 복원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서 동쪽 면에 아궁이가있는데 평면이중자형으로온돌에 직접 불길이 닿지 않도록 설계한 독특한 방식이다. 서쪽굴뚝은기단면아래로향해있으며 역풍 현상을 막기 위해 끝부분이 양쪽으로갈라진점이특징이다.

세연정의 창호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외부에 판문을 달았다. 판문을 열면 윗부분은 처마에매달리고 아랫부분은땅에 늘어뜨려져합치면판옥이되는구조였다. 물은맑아 못속의돌이둥글거나모난것이훤히들여다보였다고 한다. 못 남쪽과 북쪽에는 암석

암태도징검다리

으로섬을만들었다. 또한, 동백과영산홍을 식재하였고, 비홍교 남쪽에는 흑약암 등의 일곱 암석이 있어 편액을 칠암헌이라 하였다. 중앙은세연정, 남쪽에는낙기란, 서쪽에는동하각, 동쪽에는호광루라했다.

세연정의 돌다리…굴뚝다리와 비홍교

한편, 흐르는 시냇물에 제방을 막아 논에 물을 대는 원리를 이용하여 세연지에 물을 가두기위한판석보일명굴뚝다리를설치하였다. 양쪽에판석을세우고그안을진흙과 강회를 섞어 채워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였고 윗부분에 다시 판석을 깔았다. 판석의 크기는 높이 160cm, 폭 210cm, 길이 1,620cm 정도이다. 판석보는물막이시설이나평소에는옥소대로오르기위해세연지를 건너는다리역할을하였고, 장마때는물이 넘쳐작은폭포가되기도한다.

세연정에는또다른다리가하나있다. 바로비홍교이다.「보길도지」에는세연정못의 중앙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자 서쪽에약간의물이고여있는곳에거북같은암석(龜岩)이놓여있는데그위에비홍교(飛虹橋)를설치하였다고한다. 그러나, 지금은그자리에 잡석을 쌓아 호안과 방단이 연결되어 흔적을찾기가어렵다.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